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글 | 이 성 애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장
송곡고등학교 사서교사
dareem@naver.com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부는 지·덕·체를 겸비한 창의력 계발과 인성 함양의 필요성과 함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 해답은 바로 학교도서관에 있다.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 창의 인성교육 실천의 지름길은 바로 학교도서관의 활성화이다.

1. 학교도서관과 교육과정 연계는 필수이다.

국내외 학교도서관과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협력수업의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모든 학생에게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 신장의 핵심이 학교도서관이다.

2. 학교도서관에는 반드시 사서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추진으로 학교도서관 인프라가 상향 구축되었지만 인적 자원 측면에서는 배려가 적었다. 전국 초·중등학교의 학교도서관 설치율이 99.6%인데 반해 인력배치가 안된 학교도서관은 54.19%이고, 사서교사 배치율은 6.4%이다.

3. 각 교육청에 사서교사 출신의 장학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학교도서관 담당 장학사의 부재는 도서관 협력수업과 내실 있는 독서교육을 어렵게 한다. 학교도서관을 운영한 경험 있는 사서교사를 장학사로 배치하여야 한다.

4. 학교도서관 관련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한다.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에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를 '전담부서를 두어야 한다'로 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장학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사서교사와 사서의 직무분석 필요와 배치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 확충과 함께 사서교사와 사서의 직무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배치기준 도출 및 관련법령 개정이 절실하다. 계약직 사서의 열악한 처우개선과 함께 직무분석도 함께 이루어져 바람직한 학교도서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6.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서교사 배치를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는 「도서관법」(법률 제9528호)처럼 임의조항으로 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진흥법」(법률 제8852호)도 의무조항으

로 개정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1384호)에서 정한 교원으로서의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와 「도서관법」(법률 제10558호)에서 정한 사서의 자격이 다른 바,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학교 규모와 자격 유형에 따라서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학교도서관진흥법」 12조2항 및 시행령7조에는 학생수 1,500명당 1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학생 수가 점점 감소되고 있는 현실점에서 학생 수 조정이 시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7. 퇴임 사서교사 인원만큼 신규사서교사가 충원되어야 한다.

퇴임 사서교사 자리에 신규 사서교사가 임용되어 사서교사 인원이 감소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8. 학교도서관은 지역사회 개방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수행도 확장시켜야 한다.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 주민에게 개방하여 공공도서관의 부족현상 해소에 일조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인적 자원을 공유하여 학생중심 교육의 장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적극적 지식창출의 장으로 확충, 전환을 도모한다.

9. 사서교사를 모든 학교에 정원 외로 채용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07년 사립고등학교에 한하여 사서교사를 정원 외 TO로 두도록 하여 116명의 사서교사가 신규 임용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에서 사립학교 사서교사를 정원 외로 둔 유일한 교육청이다. 이렇듯 서울시교육청의 조치가 타 교육청으로도 확산되어야 한다.

10. 학교장 연찬회나 연수에 학교도서관에 관한 연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학교장의 시각에 따라 다

르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교감, 교장 연수에 학교도서관 연수과정을 넣어 학교도서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11. 초·중·고등학교 학교도서관의 차별화된 직무분석이 필요하다.

초·중·고등학교 학교도서관은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분석 및 직무분석의 차별화가 요구된다.

아직도 필자는 안개 속에 있는 학교도서관의 중심에서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의 미래가 학교교육의 미래임을 알기에 그래도 필자는 여전히 소망한다. 언제나 쉬는 시간 종이 치면 도서관에 살며시 들어오는 학생이 있다. 학급에 적응이 안되는 학생들이 제일 먼저 도서관을 찾는다. 처음에는 서가 주변을 맴돌다가 시간이 갈수록 책도 보고 컴퓨터

터에도 접근한다. 학생들이 밀물처럼 넘실대는 점심시간에는 서가 어느 구석에 서성이다가 학생들이 썰물처럼 나간 다음에 혼자 학급으로 돌아간다. 평균 한 학년에 두세 명은 이런 학생이 있다. 학기 초에 살며시 접근하여 말을 시키면 대답도 잘 안하던 학생이 조금씩 마음을 열어 먼저 말을 건네며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바라

보는 필자는 그 학생의 희망을 바라본다. 처음에는 적의를 뽐고 눈빛도 곱지 않던 학생이 선한 눈빛으로 다가와 먼저 말을 건네는 순간 필자는 사서교사로서의 기쁨을 느낀다. 그 아이들의 쉼터가 되는 공간이 바로 학교도서관이다. 청소년의 앞날이 걱정이라며 모두 한마음으로 걱정을 한다.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잘 수행된다면 학교폭력의 문제도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학교 현장에는 학교폭력의 증가, 인성교육의 부재로 여러 가지 갈등요소를 많이 안고 있다. 그 해답이 필자는 학교도서관에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도서관과 교육과정 연계는 필수이다

모든 학생에게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한 창의력, 문제 해결능력 신장의 핵심이 학교도서관이다.